

# 한동훈 국힘 사령탑 취임...“내년 총선 불출마”

###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을 위한 악법”...기존 입장 재확인 이준석·김건희 특검·당정관계·외연 확장 등 ‘시험대’

26일 취임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승리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주사(先民主事)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지만, 내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은 즉시 출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오늘부터는 여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란 지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다. 거기서 수직·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했다.

그는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 암투는 이 관계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총선 106일을 남겨두고 새내기 정치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 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전국위원 재적 824명 중 650명이 참여, 찬성이 627명, 반대가 23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지명자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전례 없는 ‘파격’으로 여겨진다.

당 안팎에선 한 지명자가 표류하는 당을 수습하고 총선을 지휘하기 위해선 대부 때처럼 기존 정치권 문법과는 다른 ‘파격적 쇄신’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통해 ‘수직적 당정관계’의 재정립,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지지층 복원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에 등판하는 자신을 ‘9회 말 2사 타석에 선 타자’에 비유한 바 있다.

그는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스트라이크인지 아웃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을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지명자의 ‘후회 없는 스윙’이 맞아들어갈 경우 현재 불리한 선거 판도를 여당에 유리하게 뒤집고, 한 지명자 자신도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성과 없는 ‘헛스윙’으로 끝날 경우엔 총선이 어려워지면서 당과 한 지명자 모두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한 지명자는 취임 직후부터 까다로운 공을 연이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7일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있고,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사 의혹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 청년층 지지자들도 함께 이탈해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러한 ‘보수 분열’ 우려에 한 지명자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특검의 경우 당과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 시 여당 배제, 수사 상향 언론 중계 등 독소조항을 이유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굳혔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야당의 공세와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할 때 한 지명자가 이를 돌파할 묘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취임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尹 “저출산, 다른 차원의 고민해야...3대 개혁 끝까지 완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정확한 목표나 재정 추계 없이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망라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할 때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

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방향으로는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 개혁에 대해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과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국힘 싱크탱크, ‘빅데이터 총선후보 경쟁력 분석’ 시스템 개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총선 지역구별로 후보자 경쟁력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희대 연구팀, 민간업체가 개발에 참여한 ‘빅데이터 후보 경쟁력 분석 시스템’은 선거 지역구·후보자별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도출한 38개 분석 지표를 적용하고, 인공지능(AI)이 딥러닝을 통해 선거구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여의도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구에 어떤 인물이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역구별로 상대 후보자들과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경쟁자 분석 기능’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미 18~21대 총선 결과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90%대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 동력 떨어진 이준석 신당...오늘 탈당할까

### 국힘 내부 탈당 기정사실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한 탈당 시한을 앞두고 당내에선 이 전 대표와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탈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선임대변인은 26일 B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탈당할 수밖에 없도록 당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너무 많이 했고, 낱짜를 특정한 것이

전략적인 실수”라며 “탈당할 경우 우리에게 유리할 일은 하나도 없지만 불리한 상황도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날 ‘한동훈 비대위’를 띄우면서 이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이나 신당 창당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한 뉴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당내에서 이 전 대표를 잡아야 한다는 기류도 없다. 자중

수를 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그룹에서도 탈당 및 신당 창당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이미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에 남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허은아 의원은 거취를 두고 “곧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비주류 일각에선 당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 이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연합뉴스

**언제! 어디서나! 해외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운항 일정

구분	운항기간	운항주기	항공사
나트랑	연 중	수, 토	퍼시픽항공
		화, 토	비엠펙항공
베트남	연 중	4일 단위	퍼시픽항공
		수, 토	비엠펙항공
달랏	연 중	월, 목	퍼시픽항공
		수, 토	베트남항공
하노이	연 중	수, 토	베트남항공
		수, 토	베트남항공
기타큐슈→하네다	연 중	3일 단위	스타플라이어
		수, 토	스타플라이어
일본	연 중	화, 금	제주항공
		목, 일	제주항공
대만	연 중	수, 토	제주항공
		수, 토/일	제주항공
태국	연 중	화, 금	제주항공
		4일 단위	라오항공
라오스	연 중	4일 단위	스카이앙코르항공
		4일 단위	스카이앙코르항공
필리핀	연 중	목, 일	로얄에어필리핀
		목, 일	로얄에어필리핀

**7개국(베트남, 일본, 대만,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12개 노선, 15편 운항**